

# 자신학화 본질

## 정교회 이콘을 통한 반추

권성찬 선교사 (GMF 대표)

### 들어가면서

필자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역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탈리반 정권이 다스리던 시기와 일치한다. 문해교육과 번역 등의 훈련을 받고 P종족 사역을 위해 입국한 필자는 입국한지 1년 후 새롭게 정권을 차지한 탈리반 세력의 정책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 문해교육 책자 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두 가지 어려움이였다. 하나는 외국인이 책 출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지인을 통해 발간하면 될 수도 있었기에 피해갈 수 있었다. 두번째 어려움은 책에 그림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책에는 그림이 거의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그림을 우상으로 여기는 원리주의 정책으로 인해 책에 그림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특히 성인교육에서 어려운 문제였다. 모든 그림을 우상으로 여기는 아프간식 이슬람 원리주의는 구약의 십계명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교회의 이콘에 대한 일부의 주장, 즉 그것은 이교적이며 우상 숭배와 관련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구약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상징물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그 그리스도를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들, 즉 정교회의 이콘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상충되어 보이는 것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학화와 본질이라는 주제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 1.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20:4).

“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신4:15)

교회, 특히 개신교에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배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말씀에 근거한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상(페셀) 그리고 형상(테무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첫번째 주장은 하나님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앞선 1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과 연결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는 해석이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본문을 비틀어 확대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언급하지 않았으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적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은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구별하여 보는 견해로서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월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이에 대해 우상(페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 즉 '이미지'로 보는 것을 지지하며 따라서 2계명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유혹이란 하나님의 경쟁 상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시적이고 조정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sup> 실제로 뒤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임의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섬긴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오류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축소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 즉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멈추고 대상을 정형화하여 자신의 바램이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명령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동일하게 적용할 다소 윤리적인(하나님만 예배하라) 해석을 지나 좀 더 예언적인 해석도 있다. 정교회의 성화 전문가인 우스펜스키는 다마스쿠스의 성인 요한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구약의 형상 금지가 함축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신비스럽게 암시된 것은 무엇인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표상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몸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인간이 되심을 그대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그의 인간적 면모에 대해 표상을 만들 것이다”. 이 인용에 보충하면서 우스펜스키는 “볼

---

<sup>1</sup> Walter Brueggemann, 1994, 842.

수 없는 하느님을 표상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는 예언이 성취된 후에는 하느님을 표상해야 할 필요성을 그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일단 구약의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대에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차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표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 한가지 보충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마치 아프리카의 탈리반처럼 모든 형상을 금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형상, 상징들을 만들도록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2. 구약의 형상 및 상징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도록 하신 형상은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려고 한다. 하나는 모세에게 만들도록 하신 놋뱀 형상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21:8-9)**. 놋뱀은 분명 하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형상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놋뱀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하지만 형상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놋뱀 형상에서 발생한다. 이 놋뱀은 히스기야 왕때까지 보존되었는데 결국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히스기야는 그것을 없애 버린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왕하18:3-4)**.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만들었던 에봇의 예이다. 지도자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리라고 말한 기드온의 의도는 그 에봇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도록 의도했을 것이나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여 오류에 빠지게 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 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삿8:27).

하나님께서 형상을 허락하신 또 다른 예는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법궤 등 여러 기구와 관련되어 있다. 법궤 위를 덮는 속죄소에는 두 개의 그룹(천사) 형상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모든 형상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일종의 상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으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참조 출31:2, 6) 상징과 형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은사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사용하신 좋은 예이다. 성막, 법궤는 거룩함을 상징하지만 형상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항상 그 안의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에 초점이 있다. 그 내용이 사라지고 형상만 남을 경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 법궤의 경우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지만 그것을 일종의 부적 혹은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 일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때 일어났다.(참조 삼상4:3-11). 그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삼상4:11).**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형상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금하셨고 다른 형상은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으나 상징의 내용이 사라지고 그 형상을 도구화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화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그런 형상, 상징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3. 성육신

이제 앞서 예언적인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다루는 이콘은 한층 복잡한 논의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구약에서 금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며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형상과 상징이 가리키는 의미의 완성으로

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나냐”(요14:9). 또한 요한서신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 바울도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골1:15).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면에서 이콘, 즉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의 이콘으로 동일시하거나 그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것,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콘이라는 문장을 근거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형상화한 이콘의 정당성을 찾는 것도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정교회가 이콘에 대한 정당성을 성육신에서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해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이콘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말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당성과 한계를 생각해 보자.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조에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참조요1:1)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보내셔서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의 인격과 삶과 사역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지 무슨 마네킹과 같이 고정된 이콘으로 존재하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모든 것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콘이기에 정교회의 이콘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하면 정교회의 이콘, 즉 그림이나 형상이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콘이라는 것이 포함했던 다면적이며 풍성했던 관계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로 축소되게 된다. 성육신에 근거하여 이콘의 정당성을 말할 때 불가시적인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으니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정당성만을 말해야지 그 전체를 일치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정교회의 이콘, 즉 앞서 지적한 한계를 가진 이콘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보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해졌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즉 사도와 그 외 여러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가? 즉,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였을 것이다. 물론 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 자신들이 깨달은 것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잠시 아프간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P종족으로 들어간 계기는 이미 P종족에서 사역하던 한 구호단체가 위클리프에 사역자를 요청하게 되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구호단체는 P종족에서 건강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P종족 사람들은 말은(spoken language) 있지만 자신의 말을 표현할 문자(written language)가 없었기에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를 느낀 그 건강보건 프로젝트는 그림 차트로 만들어 설명을 해 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위클리프에 사역자를 요청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로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림 등 형상은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등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그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었지만 문해자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비문해자였으니 구전과 그림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졌을 것임은 오늘날 비문해율이 높은 지역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생각이다. 우스펜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형상과 그리스도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전통의 원천을 이룬다. 이 전통 안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말과 동시에 형상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설파하였다”.<sup>2</sup>

4세기 말에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과 정경화 이후에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 당연히 다양한 형식을 사용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여러 사역의 의미들, 더 나아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표현한 것들, 즉 형상은 초기 구전, 그리고 여러 글로 기록된 문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할 수 있다. 교회가 기록된 문서를 검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 정경을 공인하기 전까지 이콘은 구전 혹은 기록된 문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가리키

---

<sup>2</sup> 우스펜스키, 2012, 24.

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파고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5:30-40).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주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한 이콘의 역할은 현재에 와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상 숭배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콘 논의로 좀 더 들어가 보자.

## 4. 이콘

레오니드 우스펜스키가 저술한 “정교회의 이콘신학”의 내용을 근거로 정교회의 이콘에서 주목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콘의 기원은 위에 언급한 대로 성육신에 기반을 두며 교회의 시작부터 말과 더불어 형상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둘째로, 이콘은 ‘인간의 손으로 그려지지 않은 형상’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려진 이콘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기원하며 정교회 전통에서 여러 기록물을 통해 나타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의미를 확대하여 이콘이 인간적 개념에 따라 창조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분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로부터 기원한다. 초기 이콘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 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콘으로 대별되는데 그리스도의 이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성모 마리아의 이콘은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데오시스(신화)의 예로서 인간의 데오시스를 실현한 첫 사람을 드러낸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하여 우스펜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교회는 동정녀가 원죄의 결과를 짊어진 타락한 인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아담의 후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동정녀는 자신의 존재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표에 이미 도달한 첫번째 인간이다”.<sup>3</sup>

---

<sup>3</sup> Ibid. 56.

세번째, 초기 이콘들은 순수하게 사실주의적인 초상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스펜스키의 말을 인용하면, “초기의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상징이나 그리스-로마 신화의 몇몇 주제까지 활용하였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예술의 여러 형식을 활용하였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었으며, 이 새로운 내용은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을 또한 수정시켰다”.<sup>4</sup> 교회는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심지어 고대 신화를 사용하여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하는 이콘에 대해 정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논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수단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이콘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마리아의 이콘에 대한 생각도 개신교에서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정교회의 설명대로 죄의 영향아래 있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데오시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그 데오시스에 이른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기에 마리아에 대한 이콘을 만든다는 것도 그 목적을 유지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콘이 사실주의보다 그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이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속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요소를 가져왔다는 것은 기독교 성경이 가진 번역가능성을 이콘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콘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그 다음, 그리고 이후에 오는 세대에게 더욱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며 외형이 아니라 의미를 그리고 각 문화가 이해하도록 과감하게 문화를 차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가면서

간단하게 이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글의 목적은 정교회의 이콘에 관련하여 형상에 대해 반추하면서 그것이 자신학화라는 주제에 대해 주는 통찰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앞의 것을 정리하는 걸어보라는 몇 가지 관련된 생각을 나누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하나, 자신학은 본질을 향한 시대의 몸부림이다.**

---

<sup>4</sup> Ibid. 67



이콘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한 구약,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성육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현한 이콘 시대이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한 구약의 경우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늘 지도자, 제사장, 왕, 선지자 등을 통해서 끊임 없이 소통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상을 금한 것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적극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지 형상으로 왜곡된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소극적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목적도 그 분 자신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39) -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선 금지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드러냄도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콘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수도원 운동이나 정교회의 이콘 신학에 있어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초대교회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였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 생활이었다. 구약에서 다양한 상징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했을 때 그 본래 역할을 상실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해지고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의미를 잃는다.

**하나, 자신학은 본질과 연계되어 있기에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도원 운동 등 다양한 운동과 그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일종의 자신학인데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은 달랐지만 그 모두는 당면한 시대에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즉 본질을 향한 몸부림이었다. 특히 초대교회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든 것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자신학화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수도원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수도

생활은 박해가 사라진 시대에 나타난 순교의 다른 표현이었으며 수도운동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결단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자신학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자신학의 상호 연결이라는 면에서 다른 분야 - 예를 들어 철학의 상호문화 철학 -와 많은 부분 공유하지만 동시에 자신학의 독특한 면은 각각의 자신학이 가진 본질과의 연결성 때문에 자신학간의 상호 신학이 아니라 본질을 통한 상호 연결이라는 면이다. 신학간의 대화가 아니라 각각의 자신학이 가진 본질과의 관련 여부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만이 상호 신학화의 자리에 초대될 수 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자신학의 기능은 자신학의 연결을 통해 소위 메타 신학을 발견해 가는 신학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본질과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의 확장, 본질의 풍성함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학은 외연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고 풍성케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하나, 자신학은 본질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신학화의 과정은 본질을 향해 지속적인 성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찰이 멈추는 순간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형상만 남아 축소와 왜곡과 변질과 반역의 길을 차례로 걷게 된다. 이것은 시대마다 일어났던 신학, 즉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학이라고 말해야 하는 다양한 신학의 경우는 물론이고 이 글에서 다룬 이콘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한다면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내의 모든 교파의 형성은 자신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정 교파가 믿는 어떤 내용이 하나의 형식으로 구체화되고 전달되면서 위험한 요소를 함께 가지게 된다. 전통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전통에 대한 존중이란 그 전통이 형성된 의미와 관련하여 존중하는 것이지 형식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교파가 새로운 선교지로 전해져서 그 교파의 전통, 그리고 교파가 중시하는 형식을 보존하기 원할 때는 더더욱 깊은 의미의 성찰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도 어색하며 동시에 의미가 왜곡되거나 상실된 형식만이 유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교파들은 자신학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성찰할 의무와 필요가 있다. 이콘 역시 초기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정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깊은 전통과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오늘날 그 형식이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통의 보존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초기

에 가진 풍성한 의미, 즉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했던 그 의미가 지금도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성경 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형상이 가진 위험처럼 성경을 그리스도와 무관하게(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절대주의 혹은 성경문자주의로 간다면 칼 바르트가 가톨릭의 교황 중심에 빗대어 언급한대로 종이 교황(paper Pope)이 될 수 있다.<sup>5</sup> 윌터 브루그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다. “복음과 성경을 혼동하거나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공의라는 좋은 소식에 반하는 온갖 소리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문자주의(biblicism)는 교회의 믿음에 위험한 존재이다...”<sup>6</sup>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식은, 그리고 자신학은 본질을 향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 발견해가는 신학, 즉 자신학이 이렇게 본질을 내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레오니드 우스펜스키. 박노양 역. 『정교회의 이콘 신학』. 서울: 정교회 출판사, 2012.

Barth, Karl, 1975. Church Dogmatics. Vol 1,2.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Edinburgh: T & T Clark.

Brueggemann, Walter, 1994. ‘The Book of Exodus’ In vol. 1, The New Interpreter’s Bible: Genesis to Leviticus. Nashville: Abingdon Press.

\_\_\_\_\_. 2022. How to read the Bible on homosexuality.

---

<sup>5</sup> The Bible was now grounded upon itself apart from the mystery of Christ and the Holy Ghost. It became a “paper Pope,” and unlike the living Pope in Rome it was wholly given up into the hands of its interpreters. (CD I.2, p 525)

<sup>6</sup> Walter Brueggemann, 2022.

<https://outreach.faith/2022/09/walter-brueggemann-how-to-read-the-bible-on-homosexuality/>[30 October 2022].